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선의 율동에 의한 추상적 형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 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염 지 윤

선의 율동에 의한 추상적 형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 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염 지 윤

인 준 서

염지윤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20세기의 미술은 다양한 형태로 환원하거나, 비재현적인 형태를 구상하거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는 다양한 경향이 보인다. 또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에 눈뜨게 하였다.

인간에게 깨어 있는 의식(意識)이나 마음(心)이 고전적인 심리학 연구의 대상물이 된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 미지의 영역인 무의식(無意識)의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무의식을 학문적으로 이끌어 내었고, 인간의 무의식적 내면의 세계를 연구하고 해석하였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심리를 형성한다. 본인은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과 현상들, 기억에 대한 심리적 양상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규범과 규칙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하여 자유연상을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자유연상은 본인의 내재되어 있는 억압된 심리와 감정을 분출하며, 동시에 추상적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 즉 본능적 감정이 만들어내는 불확실한 형태체계는 행위에 의해 분출되어 조형적 언어로 표현된다. 단순하며 반복되어지는 선들을 통해 본인의 내면세계에 자유연상을 통해 감정과, 추상적 형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조형예술에서 형태(形態)는 예술가의 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동시에 작가의 의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표현 방법일 것이다. 형태적 요소로서 선(線)은 대상을 표현하며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과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선은 자율적인 운동을 표현하며 나아가 작가의 표현 행위 속에 무의식을 표출하게 된다.

선의 율동은 인간 본연의 원시적인 감정의 하나로 무의식 내부에 감정이 존재하는 한 율동의 흐름인 것이다.

본 논문은 선의 율동을 통해 무의식의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추상적 형태를 표현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무의식을 선의 운동감, 공간감, 율동성을 표현한다. 본인의 숨겨진 내면세계를 배경으로 아크릴 재료를 즉흥적 제작하며 무의식에 의한 감정이입을 통해 선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연구하였으며 선에 대한 추상적 표현과 율동적 표현의 즉흥적 제작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작품분석을 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은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여 본 논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방법과 발전적인 방향을 서술하였다.

목 차

.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Ⅱ. 본 론 ····· 3

1. 작품의 형성배경 ····· 3

1) 무의식에 의한 자유연상 ····· 3

2) 감정이입을 통한 무의식의 표출 ····· 6

2. 작품의 표현방법 ····· 8

1) 선의 추상적 표현 ····· 8

2) 율동적 표현의 즉흥적 제작 ····· 10

3. 작품 분석 ····· 12

Ⅲ. 결 론 ····· 33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창조적 행위, acrylic, 마네킹, 7x350cm 5, 4x170cm 4, 2011 ····· 13

[작품2] Forest, acrylic, 170x80cm, 2011 ····· 15

[작품3] Flow, acrylic ,70x70cm, 2011 ····· 17

[작품4] Memory, acrylic , 70x70cm, 2011 ····· 19

[작품5] The Wind Blows, acrylic ,60x40cm, 2011 ····· 21

[작품6] Passion, acrylic, 85x45cm, 2011 ····· 23

[작품7] Wave, acrylic, 25x60cm, 2011 ····· 25

[작품8] Transparent, acrylic, 40x80cm, 2011 ····· 27

[작품9] Record, acrylic, 15x70cm 2, 2011 ····· 29

[작품10] Meet, acrylic, 25x80cm, 2011 ····· 31

I. 서 론

현대미술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예술을 구현하는 매개로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다. 예술의 본질은 주관적인 것을 의미하고 표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미를 명확히 들어내는 것을 뜻할 때 그것은 대단히 정신적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정신현상은 의식(意識)과 무의식(無意識)의 상호 역동 관계에 의하여 빚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빙산처럼 의식의 수평 위에는 일부분 밖에 떠오르지 않는 상태로 시간 속을 표류하고 있다. 의식은 언제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기능을 갖는데, 무의식은 인간의 모든 욕구와 충동을 대표하여, 어떤 힘으로 의식이나 행위로 표출된다. 본인의 작품 표현방법을 본인의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내면세계 표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예술에 있어서 무의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선의 추상적 형태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형예술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독창적인 시각언어와 내면세계와 주관을 표현하며 그 소재나 표현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선은 조형 표현의 수단이며 동시에 형상을 이루는 요소들 중에 하나로서, 그 자체만으로 무한한 변화를 이끄는 독자적인 예술 표현이 가능하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선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운동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변화하는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색과 더불어 적합한 요소”[1]라 하였다. 본인은 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선의 의해 형성된 추상적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본인은 무의식을 통해 선의 형태로 형상화한다.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선들

1)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권영필 역, 열화당, 1992, p.28

의 결합과 교차로서 움직임을 형성해 나가며 표현된 형태들은 불안전한 존재로서 자아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감정을 조형적 언어로 나타내려 한다. 또한 자유연상을 통해 선의 율동적 표현은 감정의 변화에 즉흥적 제작을 이끌어 낸다.

선의 무한한 가능성 중의 한 특성인 운동감과 방향감은 선이 반복되거나 사용된 선의 감정에 따라 율동성을 즉흥적으로 제작한다. 율동은 시각적인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동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인간의 내면세계인 감정의 근본이 된다. 율동적인 선과, 공간, 음영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의식의 흐름에 강조된 선들은 공간을 긴장시켜주고 동시에 선의 중요한 시각적 요소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연구방법으로 정신세계와 예술을 관련시켜 연구하는데 있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을 도입해 보았고 무의식 속에 자유연상 언급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본인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러 표현방법들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 제작 과정들을 검토하고 다음 창작을 위한 조형적 요소의 가치관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Ⅱ.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무의식에 의한 자유연상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억압 과정의 본질이 본능을 대표하는 어떤 표상을 제거하거나 지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상이 의식의 영역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억압을 통해 어떤 표상이 의식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표상이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2)]

예술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은 개인의 내재된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다양하고 무한한 상상력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다. 무의식은 일시적으로 불투명해진 생각이나 이미지가 중첩되어 우리의 의식에 무한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현실주의(Surrealism) 예술가들은 인간에게 내재된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고, 프로이드가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환자를 치유하는데 있어 사용했던 '자유연상법'을 이용했다. 즉 무의식에서 그 영향을 얻어내 새로운 영감(Inspiration)을 프로이트의 무의식 분석에서 끌어내고 있다. 본인은 지나온 각각의 장소는 일련의 연상들을 불러일으키고, 거의 의식적인 이지 않은 많은 단편적인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것에 집중하

2) 지그문트 프로이트,「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열린책들, 1997, p.161

지 않고 끝없는 연상의 고리 속에서 생각의 연속들을 드러낸다.

예를 들자면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1871~1922)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잠시 후, 음울하게 지낸 그 하루와 내일 또한 서글픈 하루라는 생각에 기분이 울적해지면서 나는 무의적으로 한 숟가락의 차를 마셨다. 찻잔 안에는 마들렌 한 조각이 물에 녹아 부드럽게 떠 있었다. 그런데, 과자 부스러기가 섞인 한 모금의 차가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내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이 육신의 내부로 스며들었다.[3)]

주인공 마르셀이 노력하여도 떠오르지 않던 어렸을 적의 기억이 우연히 먹은 마들렌을 먹자 한순간에 떠오르게 된 것을 언급한다. 모호한 영역에서 머물렀던 주인공의 기억의 매개로 하여 그것을 읽는 행위 통해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와 가식적인 현실세계 사이의 간격을 깨닫고 잠재된 의미를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이와 같이 시각적 연상의 과정이 언어로 기술되고 자발적인 태도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과 기억 속에 이미지를 연상하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연상은 무의식을 드러내며 그것은 끊임없이 복잡해지는 하나의 통로의 기능을 하며, 모든 자기(self)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변형시켜, 자신의 삶을 조직하여 기억 저장고 속에 넣어 둔다.[4)] 우리가 사고를 자동적이게 놓아둔다면 무의식은 표출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갖는 어떤 느낌들을 의식하게 된다. 어떠한 자극에 의해 주어진 느낌, 생각을 의식하게 됐을 때 이것은 기존에 의식화되지 않고 기억되어 있던 감각이나 경험을 불러

3) 마르셀 프루스트,「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민회식 역, 도서출판사 ,1993, p.78
4) 크리스토퍼 볼라스, 「자유연상」, 최정우 역, 이제이북스, 2005, p3

일으킨다. 그리고 기억되거나 상상된 다른 느낌들과 삶에 전체성의 관련을 맺는 경험으로 향한다. 어떤 시각적 대상들을 보는 경험, 시각적 상상력의 의해 움직이고 모든 사고의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는 시각적 경험을 통해 바다, 하늘, 별, 바람이 휘몰아치는, 시내의 흐름은 상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 경험은 과거에 이루어져서 기억에 남아 저장되고 화합되어 현재의 경험과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느낌들과 과거의 것으로 기억되거나 가능한 것으로 상상된 다른 느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의 자유연상은 무의식 속에서 들어내는 것이 아닌 경험의 의해 잠재된 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잠재된 의식에서 자기표현을 하고 작품을 통해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과정 자체에서의 상상적인 유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본인의 표현 방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었다. 여기서 자유연상으로 하여금 내면의 심리에 따라 발현되어 형태를 표현하였다. 각기 다른 내면의 감정 상태를 추상적 형태를 이룬다. 경험을 통해 자유연상은 무의식적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준다.

2) 감정이입을 통한 무의식 표출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힘을 이드(id)라 하여 무의식을 정의 한다. 그는 이드(id)의 유일한 기능은 외부적 또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생물 가운데 생기는 다량의 흥분, 즉 에너지나 긴장을 직접 발산시키는 작용[5]이라
고 말하였다. 이것은 무의식이 스스로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로 보고 이를 발

5) 캘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이용호 역, 서울 백조 출판사, 1980, p.29

산하는 작용을 표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의 표출은 본인의 작품에서 열을 가하면서 선들의 곡선이 과장되고, 교차되어 그것을 꼬는 행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놓인다. 이것은 무의식을 통해서 감정의 에너지를 드러낸다. 무의식이 본인의 내면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감정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잔 랭거(Susane K. Langer 1881~1965)는 '예술작품을 감정의 상징'이라 정의하였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지적인 관점에서 명석하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본다. 예술은 인간이 경험한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6]인간은 이성, 감성, 직관, 감각을 통해 외부세계와 내부세계, 즉 물리적 세계와 관념의 세계를 인식한다. 작업을 통해 고정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기억이나 생각들을 불러낸다.

[Forest] (작품2)은 화면을 구상하는 색은 녹색이다. 일반적으로 녹색은 자연, 산(山)이 연상되며 나에게 있어서 편안함이다.

'눈을 감아본다'. 나 혼자 숲에서 숨을 쉬며 숲속에 있는 나무와 인사하며 주변에 있는 생물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만의 비밀을 이야기하며 그 곳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낸다. 곡선은 과장과 왜곡하여 그들만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였다. 숲에서 느껴지는 안식과 나만의 공간에서 내면세계를 이끌고 있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구불구불한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본인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잠재된 힘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내어 작품 속에 표현되었다.

[Transparent] (작품8)은 물은 인간의 내면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

6) Susan K. Langer,「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89, p.147

며 표현에 있어 무한한 공간과 상상력을 이야기 한다. 또한 물은 순환하며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 상태에서 경험한 이미지로 물 이미지를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해 보았다. 물은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고 곡선을 만들어내며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으로 때로는 깨끗하게 반영되는 모습으로 많은 양의 물이 폭발적으로 떨어지고 흐르는 모습 등 감정을 이끌어 낸다. 속도감 있는 물은 리듬감을 자아내며 선적인 요소를 경쾌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물이 퍼지는 파동과 잔잔한 물결은 또 다른 느낌의 선을 그들만의 언어로 만들어낸다.

본인은 무의식 속에 경험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상상적 경험으로 선의 흐름이 율동성, 운동감, 공간감으로 나타낸다. 자연스러운 무한한 선들은 본인의 감정을 통해 추상적 형태가 된다. 그리고 무의식 안에서도 감정 전이가 이루어지며 이해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작품의 표현방법

1) 선의 추상적 표현

선(線)은 형태의 시각적 요소이며, 형태 생성인자로서 그림을 통해 시각적 형태를 만들어 낸다. 예술에 있어서 선이란 예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선, 또는 개개의 작품 속에 주제가 되는 재료나 색채를 연결시키거나 그들의 배치에 생기는 상상위의 선을 가리킨다.[7]선은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다.

하버트 리드(Herbert Read 1893~1968)는 “선은 사물이 윤곽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선 그 자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표현하며 나아가 선이 적절히 조작 되었을 때 리듬이 생긴다.”[8]라고 율동에 있어서의 선의 중요한 역할을 말 한다. 선은 우리가 늘 보는 사물이나 자연물에 시각적 목적으로 존재했던 것과 달리 본인의 내적표현의 행위성과 독창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한다. 시각적 효과의 의한 문제보다 본인의 감정과 무의식에 의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보링거(W. Worringer 1881~1965)는 “종교가 하나의 탈출 경로를 제공해 주며, 예술이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해 준다. 예술에 있어서의 탈출의 시도는 추상, 즉 견고하고 질서가 있으며 이해 가능한 형태로 인도 될 것”[9]이라고 주장했다.

감정 이입이 유한한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행복한 마음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추상은 시간을 공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정

---

7) 이경성, 「미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일지사, 1975, p.34
8) H.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서울: 을유 문화사, p.51
9) k. 해리스,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최연희 역, 서광사, 1998, p.115

지시켜 놓으려는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 더 이상 묘사된 대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비현실화를 의도한 것이다. “추상”이란 말은 부정적 의미와 함께 긍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그것은 “변형”이나 “해체” 그리고 “비인간화”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반면에, 또한 “구축”이라든가 “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술가는 파괴하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정신의 각인이 찍힌 새로운 질서를 명하기도 한다.[10]선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호흡하며 감정 표현을 추상적 형태를 나타낸다.

[창조적 행위] (작품1)은 우연히 TV에서 리듬체조 선수가 하는 리본 연기를 보면서 신체와 리본이 한 몸이 되는 것에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것을 포착하여 작품에 표현하면서 연상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들을 색(色)을 통해 더 부각시켰다. 리본 연기는 몸으로 표현하며 ‘나’를 들여다보고 동작이나 몸짓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움직임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선으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며 내면세계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마네킹을 감으면서 어느 부분은 풀어지고, 곡선의 형태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선의 추상적 형태 표현하였다. 즉흥적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표현하고, 선과 색을 통해 본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우리의 물질적인 감각은 어떤 방법으로든, 투입되어서 선이 된다. 왜냐하면, 선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춤추지도 않기 때문이다. 선의 흐름을 따라서 춤추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인 것이다.[11]또한 선은 명확성과 동적인 율동을 주고 입체적으로 표현되며 완전한 공간적 표현을 나타낸다. 선이 휘어지면서 급격히 직선으로 표현되어 속도감을 주며, 선이 얽히고, 서로 연결하여 그 공간 속에서도 긴장과 이완된 느낌을 표현하였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선이 움직이고, 감정과 느낌을 교감하면서 선의 형태가 추상

10) 위에 책, p120
11) 하버트 리드, 「예술의 의미」,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85, p.76

적으로 표현된다.

본인은 사물이나 자연,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통해 느꼈던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형태의 재현이 아닌 자유연상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추상은 스스로의 본능으로 무의식 속에 기하학적 추상을 창조하고 표현되어 진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고정된 형태와 관련시키면서, 즉흥적 제작으로 표현한다.

2) 율동적 표현의 즉흥적 제작

무의식을 추상적인 심리적 용어로만 여겨왔던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뜻밖의 경험이라고 이야기 한다. 즉흥 예술이 실용적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에서이다. 우리는 무의식을 어떤 대상처럼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현상을 만들고 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능동적 상상을 통해 무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12)]

즉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정신세계에서 상상하는 느낌을 현실에서 신체로 표현하는 것을 즉흥적 행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즉흥적 행위가 아닌 제작을 통해 선의 율동성 표현하였다.

율동이라는 요소는 조형물을 표현함에 있어 운동감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선에 율동성을 부여하고 시선의 움직임을 집중시키며 공간성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즉흥성, 순간성은 공간 속에서 내면의 욕구로 집약되어 빠르고 강하게 전달하며 상상력과 함께 추상성을 극대화 한다. 이러한 율동성을 일으키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즉흥적 제작을

12) 에드워드 암스트롱 바넷,「한권으로 읽는 융」, 김형섭 역, 도서출판 푸른숲, 1997, p.146

통해 추상적 형태로 표현된다. 무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선의 움직임을 통한 중첩 단색조의 색 등의 시각적 표현을 확장하게 된다. 감정의 느낌을 그대로 옮겨놓는 내면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변화의 리듬을 표현하였다.

즉흥적 제작에 훈련 같은 것은 필요없다.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품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에너지가 방출된다. 작품은 마치 무의식에서 직접 지시를 받는 것처럼 생명력을 얻는다. 의식적인 지시는 미미한 역할만을 할 뿐이다[13].

자유연상을 통해 즉흥적으로 표현할 때 처음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가 점차 형체가 만들어지면서 살아 있는 것이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된 듯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낀다. 이 감정적인 느낌을 통해 작품이 언어가 된다.

즉흥적 제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떠올린 이미지를 열을 가하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선을 구부리고, 꼬아 연결하며 바로 바로 아크릴 판에 붙여가면서 작품을 표현한다. 의식의 흐름에 아크릴이 열의 의해 변형될 때 교감하고 희열을 느낀다. 아크릴에 열을 가하면서 힘을 주고 구부릴 때 힘의 강약에서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들은 자연스러운 율동을 즉흥적으로 제작하였다.

선의 의미와 역할, 율동 중심으로 선의 추상적 형태를 이루어지는 율동성이 표현된 작품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열을 가하여 아크릴이 변형되고, 녹아서 열의 의해 반응하는 아크릴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다. 재료의 속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반복적이고 리듬감과 율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 아크릴이라는 재료를 통해 다양화를 시도하며 능동적으로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또한 선이나 색과 질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무의식과 내면에 감정을 표현하여 나타낸다.

---

13) 위에 책, p.146

3. 작품 분석

사물은 각각 그 자체로 구별되고 그 성질이 감지된다.

본인은 아크릴 재료를 통해 열에 의해 반응하였고 그 반응도 각기 자신의 속성에 변화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속성이 아크릴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자르고, 열을 가하는 등 즉흥적 제작을 통해 작품을 만든다. 형태의 구성을 위한 드로잉이나 다른 개념의 표현을 배제하고, 단지 본인의 잠재의식에 의지하여 조형화하였다.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 구별되는, 우리의 눈에 보여 지고 사고의 의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입체적 표현으로 선들의 율동성, 속도감이 더 부각되었다. 연구자는 열을 가하여 즉흥적으로 아크릴을 꼬거나, 감는 등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의도하였다.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경험과 감정을 이미지로 확산 시키고 자유연상의 의해 작품을 표현하였다. 각각의 색과 선의 형상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로 통합되어지고 그 속에서 본인의 잠재된 의식이 드러난다. 그럴 때 추상적인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아름다움이 표현되기를 유도하였다.

[작품 1] 창조적 행위 , 7x350cm 9, 4x170cm 9, 마네킹, 아크릴,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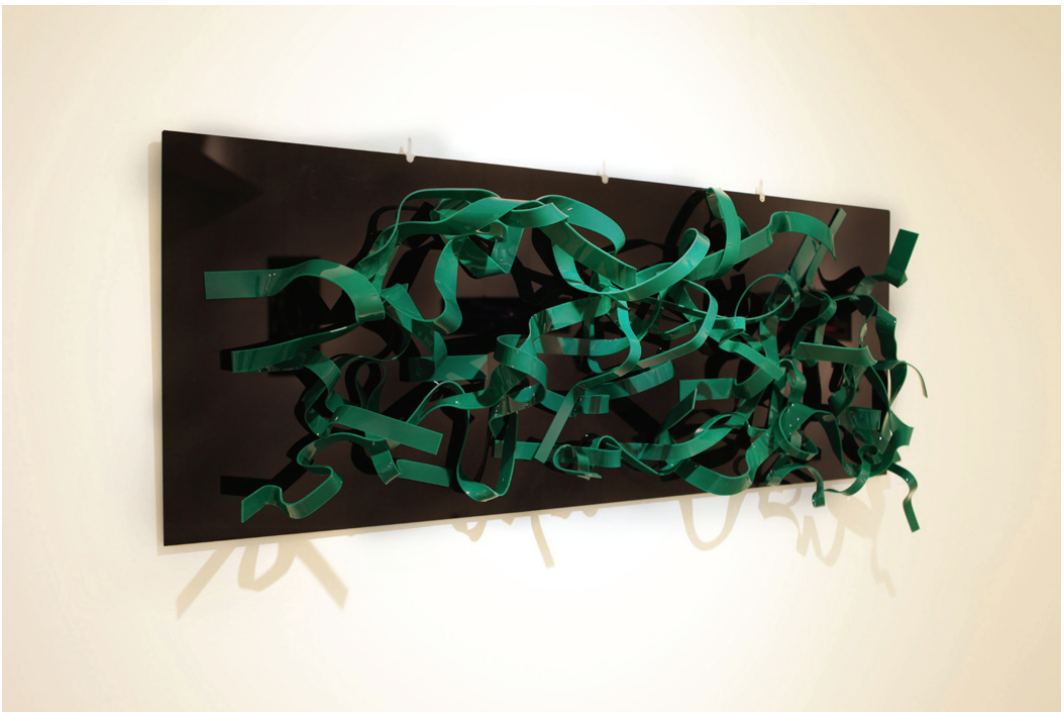
[작품 1] 창조적 행위

작품크기: 7x350cm 9, 4x170cm 9,
작품재료: 마네킹,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아크릴의 기본적인 색을 크기, 길이, 넓이를 직선을 반복적으로 레이저로 자른다. 아크릴에 열을 가하며 마네킹을 둘러 감으면서 열의 의해서 아크릴이 변형될 때 즉흥적으로 힘을 주어 선의 리듬감을 표현한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리듬체조 중에서 리본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작품을 구상 하였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자유와 연상을 통해 몸의 동작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홍겹고 자연스러운 몸짓이며 그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적 표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리본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선을 연결시키며 몸의 동작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과 공간의 조화로 전체를 구성한다. 본인은 인체를 대신해 마네킹을 사용하여 몸의 동작은 정적인 자세에서 선의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선과 색을 통해 본인의 내면세계를 담고, 운동감, 긴장감, 공간감, 율동성을 표현하였다. 선이 마네킹에 감기다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 표현되거나, 직선을 그대로 들어내어 긴장감을 주었다. 그리고 선의 조형을 시각적인 표현과 내재된 특성을 살려 표현하였다. 대상의 근저에 흐르는 리듬, 운동감, 그리고 공간감을 통해 정적인 자세에서 동적인 형태를 표현하였다.



[작품 2] forest , 170x80cm, 아크릴, 2011

[작품 2] FOREST

작품크기: 170x80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아크릴을 직선으로 반복적으로 자르며, 크기, 길이, 넓이는 다양하게 한다. 아크릴에 열을 가하여 즉흥적 행위로 작품을 표현한다.

작품설명: 숲 속은 깊고 무한한 공간 안에 울려 퍼진다. 또한 나무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아크릴의 굵은 선을 강조하여 본인의 내면의 강인함을 표현하였다. 선들이 서로 어울려 구조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선이 교차하고 강조 되어 유동적 요소를 나타내었다. 리듬감이 느껴지듯 구불구불한 형태들이 서로 연결하며 자율적으로 표현되었고 생명감을 느끼게 하였다. 선들이 얽히고 연결되어 공간속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고요한 숲 속에 길을 통한 듯 느낌을 준다.

본인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잠재된 힘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나 작품 속에 표현 되었다. 나무들이 몸을 내 맡긴 채 율동하고 있고, 자연 속에 적응하며 계속 뻗어 나아가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변화무쌍한 곡선과 굴곡은 오랜 세월의 흐름과 무한한 상상을 안겨준다.

[작품 3] Flow, 70x70cm, 아크릴, 2011

[작품 3] Flow Drawing

작품크기: 70x70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앞의 제작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본인 어렸을 때 물감불기를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추상적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물감이 종이에 떨어져 맺혀있다. 그 물감을 불고 종이를 들어 흔들어 의도적으로 방향을 잡고 물감이 흘러지나 간 자리에 그림이 그려진다. 화면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구상하였다.

본인은 경험을 통해 재현이 아닌 무의식에서 선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선이 단순하게 표현 되거나 물감이 바람의 의해 흐르듯 열을 가해 아크릴이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고 휘어지면 그대로 화면에 붙어가면서 표현하였다. 물감불기 기법을 가미시키며 공간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율동성을 주었다.

본인은 경험을 통해 느꼈던 재미를 이 작품에 표현하였다.

[작품 4] Memory, 70x70cm, 아크릴, 2011

[작품 4] Memory

작품크기: 70x70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앞의 제작방법과 동일함.

작품설명: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나타내거나 연관되어 나타내는 상형문자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보여 지는 상형문자처럼 본인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추억하고 싶다.

우리들은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스쳐지나가고 많은 것들을 본다. 그러나 대게는 기억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의 감정과 기억을 얻게 된다. 기쁨, 슬픔, 괴로움, 즐거움 등을 느끼며 그것에 관한 기억을 추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어제 오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렇게 물 흐르듯, 시간이 흐르듯, 우리의 기억도 점차 잊혀져간다.

본인은 기억의 단편들이 여러 개의 이야기들로 나열 된 듯, 아크릴의 크기를 제각기 다르게 하여 서로 연결하고 끊어지게 표현하였다. 화면에서 보여 지는 선들은 기억의 조각처럼 유영하게 떠다니는 듯이 나타내었다.

[작품 5] The Wind Blows, 60x40cm, 아크릴, 2011

[작품 5] The Wind Blows

작품크기: 60x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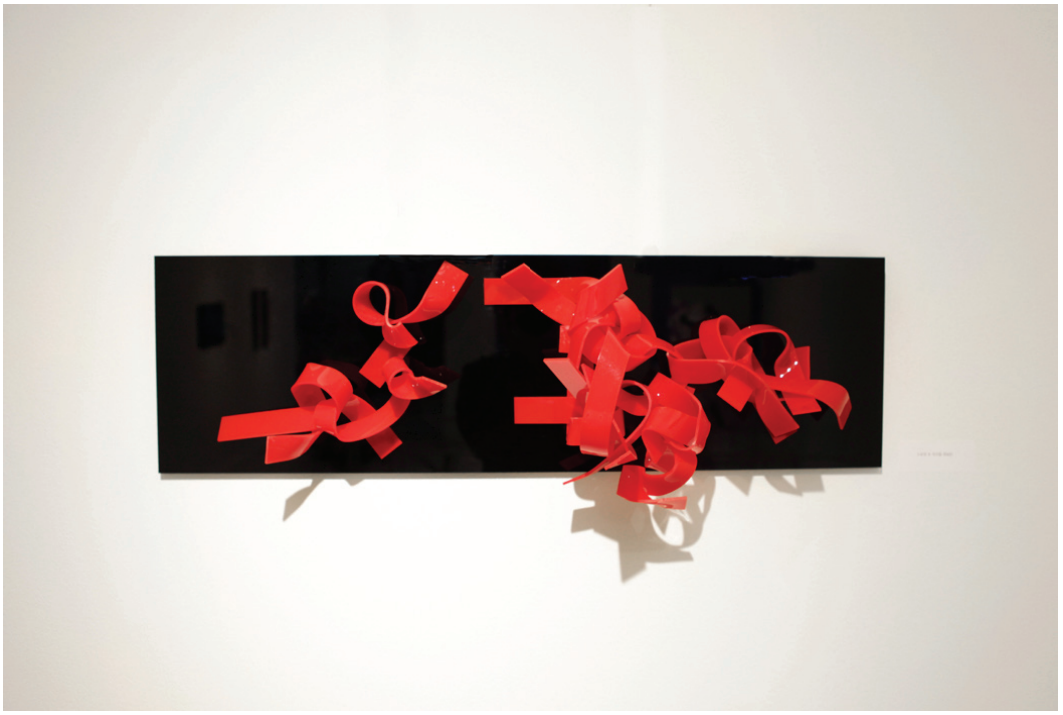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아크릴 두께는 1t로 하여 아크릴 선들을 반복적으로 짧게 잘라 한 곳이 모여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선을 연결하였다.

작품설명: 우연히 잡지를 보다가 한 모델이 모자의 달린 장식 리본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름다웠다. 바람에 의해 연출되어 사진에 포착된 리본을 서서히 스며들고자 한다. 본인은 리본이 바람에 의해 휘날이는 모습을 포착하여 그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감정이입을 통해 표현하였다. 머리위로 불어오며 바람에 흩어져 리본들이 사라져가고 풀어진다. 시간이 흘러 기억되고 추억되어 본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리본이 바람에 스쳐 고요한 떨림을 곡선을 통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아크릴이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은 본인의 감정과 기억이며 바람은 시간이 흘러 그 기억과 감정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작품 6] Passion, 85x25cm, 아크릴 , 2011

[작품 6] Passion

작품크기: 85x25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빨강색 아크릴을 반복적으로 잘라내어 작품을 구성하였다.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여 형태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설명: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과 군중에 영향을 받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한다. 하나의 화면속의 선들이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형태를 만들고 또 그 선들이 끊어진다.

선들을 짧게 반복적으로 잘라내어 연결한 것은 색과 짧은 선이 강렬한 느낌을 주면서 선들이 어울려 율동성을 나타내었다.

현실 탈피를 갈망하고 있으나 본인 자체도 그러한 현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본인의 내면을 표현 하였다. 본인의 내면은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는 삶의 고뇌의 모습 일 수 있다.

[작품 7] Wave, 25x60cm, 아크릴, 2011

[작품 7] Wave

작품크기: 25x60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아크릴을 직선으로 반복적으로 자르며, 크기, 길이, 넓이는 다양하게 한다. 아크릴에 열을 가하여 즉흥적 행위로 작품을 표현한다.

작품설명: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과 내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바다에서 느껴지는 생동감 있고, 출렁이는 파도의 물결을 표현하였다. 바다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물결을 표현하기 위해 물결의 형태와 흐름에 의한 선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선의 감속, 곡선 상하로 움직이고 완만하게 진행하다 급격히 휘어 긴장과 이완을 갖게 하였다. 또한 곡선은 평온하고 안정감을 준다. 곡선적인 요소와 더불어 면과 선이 결합하여 또 하나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선의 형태로 운동감을 나타내고 그 형태 자체를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그 공간에서 안정적인 운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8] Transparent, 40x80cm, 아크릴, 2011

[작품 8] Transparent

작품크기: 40x80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제작방법 동일함

작품설명: 물이 요동치는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듯 느낌을 준다. 물방울이 모여모여 투명하고 무한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편안함, 고요함, 쓸쓸함, 긴장감, 두려움 등 이러한 감정을 물 표면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선들의 조화는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물의 끝없이 움직이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투명한 아크릴의 선들이 빛의 의해 투영되고 선들이 모호해진다. 빛의 의해 선들이 음영되어 무수한 선들이 교차되어 보여진다.

본인은 물의 표면의 흐르는 무수한 물방울 등이 모여 빛의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이상향의 세계를 보는 듯하다. 그 빛으로 빠져들어 갈 듯하다.

이 작품에서 시각적 느낌은 보는 이에 따라 다각적인 해석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작품 9]Record, 15x70cm, 아크릴, 2011

[작품 9] Record

작품크기: 15x70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이 작품은 얇은 선을 잘라서 구부리고, 감아 보았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서예체를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글씨체가 붓의 의해서 써 내려가 듯하다. 본인은 잊혀 진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나타내었다. 화면 안에서의 검정색과 흰색의 대립에서 잊혀짐과 기억됨의 존재를 표현하려 하였다. 흰색은 붓질에 의해 명료하고 강하게 나타나며 검정색은 조용하면서 움직임을 남겨 사라져 버릴 듯하다. 선들의 사이에 공간이 일정한 가 아닌가에 의해서 다양한 분위기의 율동성이 형성된다. 반복에 의한 이러한 리듬감과 운동감을 이용하여 추상적 형태를 표현하였다. 자연스러운 선의 선율이 느껴지는 선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글씨체는 나를 기억하고 기록 될 것이다.

[작품 10] Meet, 25x80cm, 아크릴, 2011

[작품 10] Meet

작품크기: 25x80cm

작품재료: 아크릴

제작년도: 2011년

제작방법: 제작방법 동일함

작품설명: 사물의 본질을 극도로 간결하게 선과 형태를 드러내었다. 선이 대각선과 일직선들이 교차되어지고 방향성과 움직임을 최소화 하였다. 수직선과 교차하는 것은 긴장 되지만 교차되는 공간의 곡선은 경직 되었다가 풀어지는 듯 표현하였다. 그것이 교차하는 공간의 자연스러움과 단순함을 나타내었다. 선에서 보여 지는 간결함과 단순함은 안정되어지고 평온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조형적인 연출보다는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Ⅲ. 결 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더 억압적이고, 꿈과 현실에 망상을 겪으며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중시하며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숨기며 살아간다. 현대사회는 피폐되고 인간의 본질을 무시하며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지 못하고 끝도 없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인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억압된 감정들과 잊혀졌던 기억들과 경험을 통해 무의식 세계의 전의식(前意識)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본인은 정신세계와 예술을 관련시켜 연구하는데 있어서 프로이트 이론을 바탕으로 자유연상을 통해 사물이나 자연, 기억이나 경험을 통해 느꼈던 것을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였다. 자유연상을 통해 작품의 의미는 관람자의 관찰과 상상력에 의해 다시 한 번 형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즉흥적으로 제작되어 작품이 원래의 의도와는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한다. 본인은 표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세계 아래에서 접혀져 있던 무의식의 기억들이 형상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경험과 심리상태에 따라 생각의 연속들로 작품을 구상하였다. 자유연상을 통해 추상적인 선의 형태를 연구하고, 아크릴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며 작품세계를 표현한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선이 움직이고, 시각적인 상상력으로 공간감, 율동성, 시간성으로 표현한다. 선의 율동성은 표현 대상에 활기를 주어 운동감을 느끼게 하고, 관찰자의 주의를 끌어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없애고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원리임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선과 색의 조화를 이루어 작품에 느껴지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선이라는 조형적 요소를 드로잉 하듯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선들이 다양하게 교차되고, 연결되어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선

과 색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더 강렬하게 부각되었다.

본인의 작품제작 과정에서 열을 가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을 통한 즉흥성과 추상적 표현의 수단이 되었다. ‘움직인다’, ‘생각한다’, 이와 같은 기억의 흐름이 흔적이 되어 작품에서 기록되고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즉 의식에 흐름이 작품을 통해 다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본인은 추상적 표현에 있어서 감정과 해석을 통해 풀어낸다. 자유연상의 과정을 통해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며 본인의 표현 방법에 반응 할 수 있었다.

각각의 분야를 깊이 있게 논의 하지 못한 부분의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의 작업과 연결하여 아크릴의 물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해 가며 선이라는 조형적 요소를 통해 무한한 움직임과 간결함을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독창적인 영역을 갖추어 창작의 세계로 매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권영필 역, 열화당, 1992, p.28

지그문트 프로이트,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열린책들, 1997, p.161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민회식 역, 도서출판사 ,1993, p.78

크리스토퍼 볼라스, 「자유연상」, 최정우 역, 이제이북스, 2005, p.3

캘빈 S. 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이용호 역, 서울 백조 출판사, 1980, p.29

Susan 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89, p.147

이경성 , 「미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일지사 , 1975, p.34

H.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서울: 을유 문화사, 1991, p.51

k. 해리스, 「현대미술-그 철학적의미」 ,오병남, 최연희 역, 서광사, 1998, p.115

하버트 리드, 「예술의 의미」,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985, p.64

에드워드 암스트롱 바넷, 「한권으로 읽는 융」, 김형섭 역, 도서출판 푸른숲, 1997, p.146

ABSTRACT

Study on Abstract Shapes Expressed As the Linear Motion

- ON THE BASIS OF MY WORK -

Yeom, Ji Yoon
Major in Public Art
Dept,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fine art of 20C tends to show various trends like transforming to various shapes, designing non-imitable shapes or emphasizing spontaneous and free expressions. Besides the fine art of 20c provides the potential of a new sight, and allow us to open our eyes to various ways to see and cognitive things.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awakening consciousness or mind became a representative object of psychological researches, and now it is the chance to seriously think over the unconscious world, the unknown mental area. Psychology drew out the unconsciousness to the academic world, and has studied and interpreted the human's unconscious inner world.

Many works experienced in daily life shapes the personal emotions

and mentality. I paid atten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 serial events and phenomena happened in daily life and the psychological aspects about the memories. Many regulations and rules in real world request us to live in suppressing ourselves.

I focused on the fact that people do the free-association for their psychological satisfaction unconsciously. The free-association emits the suppressed mentality and feelings, and expresses themselves through some abstract shapes at the same time. That is, unclear shaping system made by instinctive feelings are expressed in a formative language emitted by a behavior. Investigating some lines simply repeated, I intend to study about the feelings and their abstract shapes transformed through the free-association in my inner world.

The shape in the formative art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o specifically express an artist's artistic images, and may be an expression method to embody the artist's intention visually. Because the line as a formative component expresses an object and has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unlimited potential, it can become the subject of expression. Besides, the line expresses automatic movements and further reveals the unconsciousness in the artist's expression behavior.

The linear motion as one of human's primitive feelings is the flow of a motion which contains a feeling existed in the unconsciousness.

This study intends to visually express the inside feelings hidden in the unconsciousness and to express abstract shapes through linear motions. In my works, the unconsciousness expresses the line's senses

of motor, space and motion.

In the Chapter 1, Introduction, I describ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research.

In the Chapter 2, Main Body, I studied Freud's theory about inside world of unconsciousness as theoretical background of my works, and described the spontaneous production method for the line's abstract expression and motion expression, and finally analyzed individual works.

In the Chapter 3, Conclusion, I summarize this paper by drawing ou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y works, and described the future research method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